

양계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소망을 갖고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투쟁해야 할 해이다. 나 자신 기독교도는 아니지만 옛 성현의 말씀을 한 귀절 인용하며 끝맺으려 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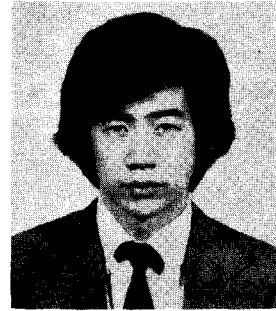
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 : 8)

시대에 부응하는 양계산업이 되도록 노력하자

하 재 봉

(한국바이오텔화학(주) 학술부, 수의사)



해가 바뀌었다고 한다.

지난 해는 계획대비 실적이 어쩔고, 1983년 계획년 새해는 작년에 비해 얼마정도를 신장하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야겠다고 온 업계가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다.

작년 양계업계는 어떠했는가?

우선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으로 그 지긋지긋했던 전염성 후두기관염(ILT)의 강타로 인한 적극적인 극심한 피해를 들 수 있을 것이다. 1982년 벽두에서부터 고질적인 양계업계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양계인들에게 달려들은 ILT는 폭풍처럼 온 양계장을 휩쓸고 지나갔고 곳곳마다 우리 양계장만은...’하는 마음으로 소독에 여념이 없었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다. 방역 관리의 헛점이 이때만큼 뼈저리게 느껴진 적도에 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자신의 소홀함이기도 했다. 국제간의 교역도 원활해지고 교통수단이 발달함에 따라서 외래성 질병이 많아질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나름대로의 방역대책의 수립에는 미처 신

경을 쓰지 못한 결과였다. 일단은 고비를 넘긴 듯도 하지만 아직도 일부지역에서는 발생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며, 발생 상재지역이 될 우려가 있는 곳도 많이 있으므로 방역관리는 ILT는 물론 미래에 닥쳐올지도 모르는 또다른 외래성 질병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라도 양계산업의 필수요건으로 확고히 그 자리를 굳혀야만 한다.

주변 환경이 바뀌고 있다.

작년도에 그와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육계 같은 경우 소비량이 신장세를 보인 것은 이제 경제성장에 따른 점진적인 식생활 변화가 오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고 보아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꾸준한 소비촉진의 홍보활동의 역할이 지대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변화되기 힘든 국민의 육류기호성도 많이 전환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겠다.

향후 1, 2년간의 소비도 문제지만 장기간에 걸친 닭고기나 계란 등 양계산물에 대한 국민기호성 향상을 위해서는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계몽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백분 감안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자라나는 세대야말로 양계산업을 안정시켜 줄 수 있는 가장 두터운 소비층이 될 수 있으며 또 양계산물은 어떤 축산물보다도 국민 보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단계로 우리나라도 정부정책에 따라 시장 자유경쟁체제를 지향하게 됨에 따라 양계 관련 산업인 사료나 약품 등 대부분의 분야가 품질과 가격, 애프터 서비스 등을 위주로 하는 경쟁에 돌입하게 되었고 양계인들은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양계인은 최신의 지식과 합리적인 경영방침을 토대로 충분한 검토 후 선택에 임해야 할 것이며, 관련 산업 분야역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양계인들에게 얼마나 경제성과 만족감을 안겨줄 수 있는가를 고려하여 좋은 제품의 생산과 애프터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1986년도 아시안 게임, 1988년도 올림픽.

결코 멀다고 할 수 없는, 앞으로 3년후에 그

리고 5년후에 치르게 될 이 두가지 큰 국제경기를 앞두고 모든 산업이 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향상과 비약적 경제발전을 지향한 당연한 추세라고 볼 수 있다.

어느 면으로보나 도약의 단계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양계산업에 있어서도 결코 예외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양계산업의 이러한 도약단계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몇가지 조건의 선행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예컨대 양계 전반에 걸친 충분한 시장상황, 사양, 질병 등 최신 지식의 보급, 유통구조의 시급한 개선, 관련 산업의 균형적 발전과 방역관리의 체계화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꾸준하고 미래 지향적인 소비촉진 활동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한다.

성장을 해야할 시기에는 충분히 성장을 하여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발판을 굳혀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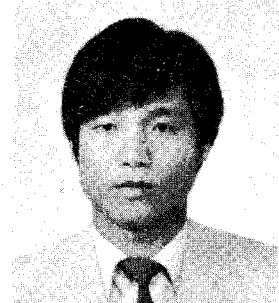
아무쪼록 양계인 모두 힘을 합쳐 시대에 부응하는 양계산업이 되도록 노력하자.

계해년 새해 아침에.

생산비 절감을 위해 효율적인 생산자재를 이용하는 지혜가

유 재 복

(선진사료(주) 영업과장)



바쁘게 뛰어다니다 보니 또 한해가 가고 다시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다. 매년 년초에 겪는 일이지만 올해도 변함없이 지난 해를 돌이켜 보

고 새해를 설계해 본다.

82년은 나에게서는 꽤 행운의 해라고 생각되어 지지만 양계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혹시”하던